

고흥 거금 연도교 붕괴

상판 '와르르' 인부 12명 덮쳐

콘크리트 타설 공사중...2명 사망 확인

고흥 소록도와 거금도를 잇는 연도교 공사 현장에서 다리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중이던 인부 12명 가운데 5명이 매몰돼 2명이 숨지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중이던 조병수(55·광양시 광양읍)씨 등 인부 12명이 무너진 상판 구조물에 깔려 매몰됐다. 이 가운데 조씨 등 인부 7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와 경찰에 의해 구조됐지만, 모두 중경상을 입어 녹동 현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11m높이의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상판과 철골 구조물까지 잇따라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119 구조대는 사고 직후 철근 구조물 해체 전문 크레인 1대와 소방차 5대, 급급차 3대와 130여명의 인력을 사고 현장에 투입해 매몰 인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날이 어두워져 구조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어린이들 "내 나무 심었어요" 식목일인 5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광주생명의 숲'·광주·전남녹색연합이 주관한 '내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봄날 햇살같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휴대전화 압수당하자 선생님 폭행

목포 고교생 수업중...교사 정신적 충격 치료

목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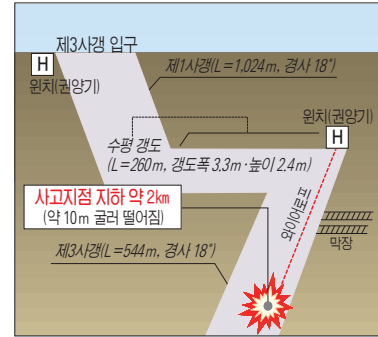
(17)군이 담당교사인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학교 관계자는 "A군이 지난달 30일 수학시간에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 B교사에 적발돼 빼앗긴 데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이날도 B

이 관계자는 또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당시 일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데 A군이 덩치가 크고 상대적으로 B교사는 왜소한 체격이다 보니 미처 말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A군을 제지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당시 일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데 A군이 덩치가 크고 상대적으로 B교사는 왜소한 체격이다 보니 미처 말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A군을 제지했다"고 덧붙였다.

화순탄광 '광차' 전복 1명 사망·3명 중경상

화순 탄광에서 석탄을 나르는 무동력 광차가 전복하는 바람에 인부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순 광업소=지난 1934년 일제 강점 때 채굴이 시작됐으며, 매장량은 4천만에 이른다. 1945년 미군정직 할로 운영되다가 1950년 대한석탄공사가 창립되어 현재의 '화순광업소'가 됐다.

지난 4일 밤 10시 10분경 화순군 동면 북일리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동광 3사 경 지하 2km지점에서 석탄 운반차량인 광차 14대가 궤도를 이탈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석탄 채굴 작업을 마치고 갱 밖으로 나오던 조차원 인부 윤모(57·광주시 동구 용산동)씨가 광차에 깔려 숨지고, 유모(57·화순군 동면)씨 등 3명은 중·경상을 입고 화순 전남대병원과 광주 일곡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부상이 경미했던 박종옥(44·광주시 북구 일곡동)씨가 갱 내 교환전화로 구조를 요청했고,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동료들이 구조작업을 벌였다.

화순광업소 측은 현장에 기계 설계팀을 파견,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광차 간 연결고리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차 14대를 함께 끌어올리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광차' 적재 용량 4대 무시 14대 무리하게 끌어올려

■사고 왜 일어났나

화순 탄광에서 발생한 사고는 경사굴(斜坑)에서 '광차'(석탄 인력 운반용 무동력 궤도차)를 끌어당기는 윈치(Winch·권양기)의 안전수칙을 어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윈치는 ▲와이어 로프가 감긴 드럼 ▲동력 모터 ▲광차 ▲권양기 와이어로프 ▲모터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감속기 ▲주·보조 브레이크 등 5부분으로 구성된다. 용량은 3000마력으로 최대 속력은 분당 136m이며, 유압식 브레이크를 통해 속도를 조절한다.

사고지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윈치는 ▲석탄을 실은 탄차 4대 ▲광부 53명 중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견인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당시엔 14대의 광차(인차 1대·탄차 13대)를 끌어올리던 중 사고가 났다.

지난 1980년 12월 설치한 윈치는 지난해 11월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목격자들도 윈치 자체 결함 가능성은 희박하며, 궤도나 로프 등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도 관리자가 윈치의 표준 용량을 크게 초과한 채 광차를 끄는 바람에 원심력에 의해 전복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한편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는 윈치 5대와 광차 355대가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니원침 (7015) 김종두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우리는 3,636 최대단지! 풍영행원·효수공원 조망의 최고 단지! 수원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담양군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5일 5·3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kzi@kwangju.co.kr

'제발 저런' 성폭행범 소란 '철창행'

○연쇄 노래방 강도를 잡기 위해 잠복근무에 나선 경찰을 보고 놀란 성폭행범이 모델로 되돌아가 "누가 나를 신고했느냐?" 소란을 피우다가 철창신세.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교도(23)씨는 지난 4일 밤 10시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16)양 일행 3명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동구 대인동 H 모델로 데리고 가 성폭행 했다는 것. ○모델을 나서던 교씨는 순찰차를 보고 방으로 되돌아가 다른 방에 재웠던 이모(16)군과 권모(15)양의 옷을 벗기고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며 구타했다고. /오광복기자 kroh@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EXPO 2012 YEosu KOREA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를 광주·전남도민이 다함께 지원합니다.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제전·전국대회 국외의장상·문화관광부 장관상 시상!! / 시상범위 확대!! 접수기간 | 2007년 4월 3일(화)~12일(목) 접수방법 | 인터넷 : 한글(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 우편·방문 접수가능